



한국노어노문학회

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The Korean Association of Russian Language & Literature

한국노어노문학회 소식지

2017년 6월 제 75호



발행처: 한국노어노문학회

발행인: 이영범

편집인: 김태진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청주대학교 교수연구동(10동) 307호

전 화: 043-229-8395 **팩 스:** 043-229-8023

계좌번호: 국민은행 918001-01-379858 / **예금주:** 김태진(한국노어노문학회)

Homepage: <http://www.karll.or.kr>

대표 이메일: karll21@hanmail.net / **논문투고 이메일:** karll_edit@hanmail.net



КОПРЯЛ

차례

권두언	3
회원논단	6
학회소식	8
30주년 이모저모	9
2017년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일정	11
학회지 발간 안내	12
학회지 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	18
회비납부 현황	23



권두언



한국노어노문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를 마치며

이영범 한국노어노문학회 회장

안녕하세요. 한국노어노문학회장 이영범입니다. 지난 6월 1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한국노어노문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Вчера, сегодня и завтр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в Корее”란 주제로 개최된 한국노어노문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священная 30-летию осно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КОПРЯЛ)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에 많은 손님들(100여 명 참석)이 오셔서 함께 풍성한 잔치를 함께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열심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식전을 빛내주시고 축하와 성원을 보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특히 축사를 맡아주신 존경하는 강홍주 교수님과 강덕수 교수님, 그리고 고일 교수님, 그리

고 훌륭한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강덕수 러시아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이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학회 전해진 부회장님, 김태진 총무이사님, 그리고 김상현 총무부이사님을 비롯한 임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21세기 노어노문학 연구는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 김학수 교수님을 추모하면서 - ”란 주제로 특강을 해 주신 강덕수 교수님과 “한국노어노문학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말하다”란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 사회를 맡아주신 함영준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네 분 교수님, 개막식 축하공연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큰 감동을 선사해 주신 한국 러시아가곡연구회 소프라노 황성희 회장님, 폐막식 축하공연에서 플루트 연주와 러시아 성악곡으로 또한 큰 감동을 선물해 주신 이주홍 박사님, 아름다운 목소리로 러시아 노래를 불러준 한국외국어대 러시아어과 합창단 “깜빠니야” 소속 학생들, “러시아 번역, 그리고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란 주제와 “러시아 어문학의 유산”과 “미래의 신진학자 러시아 어문학을 말하다”, “한국에서 외국어로서 러시아어 발전의 현 단계 Современный этап развития РК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란 주제로 열띤 발표와 토론 및 사회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 한국노어노학회가 1987년 창립된 이래 30년 동안 역대 회장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 그리고 회원님들의 커다란 관심과 협조로 전통이 있는 훌륭한 학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회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동참해주시고 협조해 주신 역대 회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회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 러시아어문학 교육이 많이 발전하여 오늘날 활짝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학 구조 조정 정책으로 인해 러시아어문학 관련 학과도 예전에 비해 많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인문학 관련 많은 학과와 학회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대책을 세워야만 합니다. “21세기 노어노문학 연구는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 김학수 교수님을 추모하면서 - ”란 주제로 특강을 해 주신 강덕수 교수님의 말씀을 대강 정리해봤습니다. 1980년대 초까지는 번역의 시대였고, 1990년대까지는 러시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양적 팽창의 시대’였고, 2000년대부터 노어노문학 연구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어구사 능력 면에서는 향상되었지만, 노어노문학이나 문화적 측면에서는 대중적 전파가 답보 내지 감소 상태이며, 노어노문학 전공학과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노어 학습과 러시아 문학에 대한 관심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러시아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어 강사 수요와 한국어 강습과 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러시아에서 이처럼 발전하고 변화하는 현상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의 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 노어노문학의 발전을 위해 6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1) 노

어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 2) 노어 언어학에서 새로운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의 활성화, 3) 노문학에서 새로운 연구 대상의 발견과 접근 방법론의 이론적 무장, 4) 대학원 교육 커리큘럼 검토, 5) 공동 연구의 활성화, 6) 새로운 문학작품 번역과 기존 번역 작품의 재번역. 이와 같이 한국 노어노문학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제안을 해주신 강덕수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언급된 인문학의 위기로 인한 러시아어문학 관련 학과와 학회의 발전을 위해 소극적인 참여와 비판을 벗어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및 소통,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암울한 절망의 시대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며 희망을 노래한 국민시인 푸시킨의 메시지에 나타난 것처럼 다함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길 소망합니다. 얼마 전부터 ‘제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AI)을 갖춘 로봇이 인간의 육체노동을 상당한 정도로 대체하게 된다면, 많은 영역의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지만,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구현할 인간의 영역을 발전시키고,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지키는 인문학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최근 어느 신문에 소개된 <북방에서 길을 찾다>란 ‘신북방정책’ 보고서란 제목의 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북핵 사태 등 남북 대치 상황에서 눈치만 보다가는 협력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 “이제 러시아라는 지렛대를 통해 다자 협력 구도에 발동을 걸어야 할 때다.” “한국 미래 국가전략을 위해 ‘신북방정책’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북방 경제 전문가들은 남북과 러시아, 중국, 일본을 잇는 △교통.물류, △자원.에너지, △경제.산업, △과학.기술.법 제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북핵.미사일을 비롯한 군사.안보 해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앞으로 경제, 외교, 문화, 교통 및 물류, 자원과 에너지, 과학 기술 등 다방면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한-러 관계



가 더욱 발전할 것이란 예상과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러시아와 러시아어란 고리로 연결된 우리 모두가 서로 돕고 소통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여 우리 학회와 러시아 및 러시아어 관련 학과들이 더욱 발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축사를 해주신 교수님들, 발표와 발제 및 사회와 토론을 맡아주신 회원님들, 러시아연구소 소장님과 관계자 선생님들, 그리고 축하공연을 맡아주신 분들과 학생 등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이 성원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며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논단

한국의 러시아어 교육의 “제 2의 르네상스”를 꿈꾸며 ...

(한국 노어노문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라운드 테이블 교육 분과 발제문 中)



전혜진 (중앙대 국제대학원)

한국과 러시아 양국관계가 ‘전략적 동반자적 관계’로 격상하고 중앙아시아 국가와 경제적, 전략적 차원에서 관계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과학기술, 스포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에서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러시아어학 능력을 토대로 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더 나아가서는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오늘날 한국의 러시아어 교육이 이론적인 연구와 다양한 교육 활동, 교수법과 교재 개발을 통해 토대를 쌓았으며, 발전 방향을 잡아가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러시아어 교육학 분야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선 우리 앞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러시아어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의사소통 과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하고, 모든 교육 영역과 요소들이 하나의 의사소통 목표를 향해 조직되고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그를 위한 교수법과 교재 개발이 중요하다. 또한 러시아어학 특성화 프로그램과 융합 커리큘럼의 개발 및 운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어학과 통번역학, 러시아어학과 금융, 러시아어학과 지

역학, 러시아어학과 문화, 러시아어학과 ICT, 러시아어학과 의료관광 등의 융합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하다.

러시아어 교육학 분야의 연구 현황을 개괄하면서, 교사 교육에 관한 연구가 부재한 것이 아쉬운 점이었다. 효과적인 러시아어 교육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 분야가 그러하듯이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학습자의 요구와 상황 변인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수법을 토대로 러시아어 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양성을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교사 변인은 교수-학습 변인만큼 중요하므로 TESOL과 같은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 프로그램 등을 벤치마킹해야 하며, 해당 분야의 인력 양성과 연구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강조해야 할 점은 러시아어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언어와 문화, 언어 능력과 문화능력을 통합하는 통합교육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관심은 높은 편이나, 이

론적 연구를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해서 그 효과를 분석하고 입증하는 실증적인 연구가 미흡하였다. 이론적인 연구에서 실제적인 적용이 실현되는 ‘이론에서 실제로’ (от теории к практике), 또한 실질적인 교육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가 이론화되는 ‘실제에서 이론으로’ (от практики к теории)의 메커니즘 구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통번역 교육 분야의 향후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통번역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의 그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최적의 통번역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글로벌 수준의 통번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 해당 언어권의 사람들과 그리고 문화와 소통할 수 있도록 최적의 통번역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통번역교육 교수법과 교재를 개발하는 일이다. 통번역의 전문성과 특화성을 고려하면, 통번역 교육이 전문 대학원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이 마땅하나, 러시아어의 실용적인 교육과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부 차원에서도 통번역 교육을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통번역 교육을 위한 언어 클리닉과 이중 언어 사용 교육에 대한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와 함께 AI 시대의 도전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ICT 활용 통번역 교육 방법론을 개발하여, AI가 위협이 아니라 통번역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CAT 도구 활용 번역, Post-editing, 통역 앱을 사용한 전문 용어 검색 및 Note Taking 등의 연구와 적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침체기’에 빠졌던 러시아어학계는 한러 관계의 새로운 도약, 한러 수교 25주년, 한국과 러시아와의 대규모 사업(TSR-TKR 연계사업, 남북러 가스관 사업, 극동시베리아 개발, 우주개발, 북극해 항로 개발 사업 등) 실현, 한국과 중앙아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 정보통신 분야의 협력 증대(전자정부, 전자관세시스템, 전자무역 시스템 구축 분야 등), ‘신 실크로드 사업’, 자원개발 사업, 등에 한국 측의 참여, 자원 외교 정책 활성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에 힘입어 2000년대 중반부터 활기를 찾고 있는 경향이 관측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의 중앙아시아 진출 확대, 러시아어 전공자들의 취업을 제고, 중앙아시아 관련 대형 프로젝트 수행, 러시아어 통번역 수요 증대, 러시아어 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 (러시아어 원어민의 통번역 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도 포함)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미약하지만 분명히 감지되고 있는 이러한 호조의 경향을 러시아어 교육과 연구의 ‘제 2의 르네상스’로 만들기 위해 제도적인 지원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국내의 러시아어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는 인력간의 지식과 경험공유 및 인적 교류 그리고 국제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러시아어 교육에 대한 아날로그적 열정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수법을 결합한 “디지털”적 접근법을 고민해야 한다.



한국노어노문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 “한국노어노문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017년 6월 10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한국노어노문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노어노문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한국노어노문학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 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에 다양한 학술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문화, 문학, 어학, 통번역·교육 분과에 대한 지난 30년간의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학회의 가치 있는 업적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학술대회를 위해 한국노어노문학회 3대 회장을 역임하신 강흥주 명예교수님, 강덕수 러시아 연구소 소장님, 8대 회장을 역임하신 고일 교수님께서 축사를 해주셨으며, 학술대회 축하를 위해 소프라노 황성희, 한국외대 노어노래패 깜빠니아, 바리톤 이주홍 박사님께서 축하공연을 해주셨습니다.

30주년 이모저모



1987년 3월 6일 매일
경제 학회창립 기사



1988년 창간호 ~ 2017년
6월 현재 학회지 변천사



학회 최초의 간판



소식지 제1호





2017년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일정

2017 러시아학 관련 4개 학회 공동 학술대회

(한국노어노문학회, 한국러시아문학회, 한국슬라브어학회,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러시아 혁명 10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

☞ 주제 : 러시아 혁명 100주년: 열정과 좌절의 시간들에 대한 회상

☞ 장소 : 중앙대학교

☞ 일시 : 2017년 10월 14일(토) 09:00 ~ 17:30

일시		발표 및 내용	비고
2017. 10.14	09:40 ~ 10:00	개회사: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회장	
문화 분과A	분과주제: 혁명기의 사상적 조류와 문화적 유산		사회: 김문황(충북대)
	10:00 ~ 10:40	발표주제: 러시아 정교문화가 러시아 혁명에 미친 영향 - 신비주의적인 유토피아주의를 중심으로 발표자: 이경완(한림대)	토론: 문준일(한국외대)
	10:40 ~ 11:20	발표주제: 데카브리스트들이 시베리아 지역에 미 친 문화적 영향 발표자: 조미경(계명대)	토론: 윤새라(울산과기 대)
	11:20 ~ 12:00	발표주제: 톨스토이와 러시아혁명 발표자: 강명수(포항대)	토론: 송정수(중앙대)
	12:00 ~ 13:00	점심식사	
점심 식사			

문화 분과B	분과주제: 10월 혁명 전후 문화계 동향		사회: 서상범(부산외대)
	13:00 ~ 13:40	발표주제: 소비에트 문화정책 연구 - 혁명 직후부터 1921년까지 인민계몽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발표자: 최진희(안양대)	토론: 오원교(경북대)
	13:40 ~ 14:20	발표주제: 혁명 후 소비에트 러시아의 문학장 연구 - 신문 문예란을 중심으로 발표자: 강수경(부산대)	토론: 김태욱(충북대)
	14:20 ~ 14:40	Coffee break	
	14:40 ~ 15:20	발표주제: 알렉산드르 고르스키와 러시아혁명 발표자: 신혜조(성균관대)	토론: 이명현(고려대)
	15:20 ~ 16:00	발표주제: 몽타주에 나타나는 시각이데올로기 고찰 발표자: 장혜진(건국대)	토론: 김상현(대구대)
	휴식	16:00 ~ 16:20	Coffee break
문화 분과C	분과주제: 박노자 교수 특별 세션		사회: 이강은(경북대)
	16:20 ~ 17:40	발표주제: Moscow as reality and cultural myth in colonial-age Korea (현실이자 문화적 신화로서의 모스크바: 식민지시대 한국의 경우) 발표자: Vladimir Tikhonov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토론: 조준래(한국외대)
문학 분과A	분과주제: 문학 텍스트로 읽는 러시아혁명		사회: 서상국(단국대)
	10:00 ~ 10:40	발표주제: 혁명과 체홉 발표자: 윤서현(서울대)	토론: 백승무(한림대)
	10:40 ~ 11:20	발표주제: 예술 속의 혁명, 혁명 속의 예술: <닥터 지바고>를 중심으로 발표자: 조혜경(대구대)	토론: 임혜영(고려대)
	11:20 ~ 12:00	발표주제: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소설을 통해 러시아혁명을 돌아보다 발표자: 심지은(한양대)	토론: 정보라(연세대)
점심	12:00	점심식사	

식사	~ 13:00		
문학 분과B	분과주제: 러시아문학과 장르의 문제		사회: 박혜경(한림대)
	13:00 ~ 13:50	발표주제: 여행기 소설의 세 가지 기능 발표자: 서광진(승실대)	토론: 차지원(서울대)
	13:50 ~ 14:40	발표주제: 전기 vs. 반전기: 탈신화화 수단으로서 의 반전기 발표자: 박선영(충북대)	토론: 김민아(서울대)
어학 분과A	분과주제: 러시아 사회와 표준어의 발달		사회: 정경택(경상대)
	10:00 ~ 10:40	발표주제: 러시아어의 사회언어학적 분석: 유기체 적 변화를 중심으로 발표자: 김형섭(중앙대)	토론: 황서경(연세대)
	10:40 ~ 11:20	발표주제: 러시아표준어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표준어의 사회적 기반과 언어주체의 상관성 발표자: 김용화(충북대)	토론: 김보라(충북대)
	11:20 ~ 12:00	발표주제: 러시아 친족호칭어 연구 발표자: 손현익(한국외대)	토론: 김태진(배재대)
점심 식사	12:00 ~ 13:00	점심식사	
어학 분과B	분과주제: 러시아어 형태와 통사의 분석		사회: 조남신(연세대)
	13:00 ~ 13:40	발표주제: 러시아어 대명사 종출구문의 통사적 파생 발표자: 권경준(성균관대)	토론: 정정원(연세대)
	13:40 ~ 14:20	발표주제: 기사(copula)범주의 진화 : 러시아어 명사술어 구문의 분석적 경향 연구 발표자: 이남경(고려대)	토론: 안혁(성균관대)
	14:20 ~ 15:00	발표주제: 고대 러시아어 부정어 어순의 통사적 함의 발표자: 정하경(서울대)	토론: 김정일(경북대)
	분과주제: 러시아어 정책과 통번역		사회: 전해진(중앙대)
어학 분과C	13:00 ~ 13:40	발표주제: 러시아혁명과 민족적 소수 발표자: 정경택(경상대)	토론: 변군혁(한국외대)
	13:40	발표주제: 소련의 대 소수민족 언어정책 -	토론: 장디아나(대전대)

	~ 14:20	고려인을 중심으로 (Советская национально-языковая политика и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발표자: 잔나 발로드(서경대)	
	14:20 ~ 15:00	발표주제: 20~21세기 러시아의 한국 문학 번역 (Перевод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в России в XX-XX I веке) 발표자: Писарева Лариса (중앙대)	토론: 이해승(수원대)
휴식	15:00 ~ 15:30	Coffee break	
어학 분과D	분과주제: 러시아어 텍스트와 교수법		사회: 김진규(고려대)
	15:30 ~ 16:10	발표주제: 논증적 담화의 수사적 특성 발표자: 권용재(경기대)	토론: 박현아(고려대)
	16:10 ~ 16:50	발표주제: 관용어 사전편찬을 위한 기초연구 - 신체어를 중심으로 한 대조 및 의미 분류 발표자: 김희연(한국외대)	토론: 오정현(중앙대)
	16:50 ~ 17:30	발표주제: 카잔 출판 교재 “고려인을 위한 키릴문자 (Азбука для корейцев, 1902)” 연구 발표자: 한지형(부산대)	토론: 이새봄(한국외대)
사회 과학 분과 A	분과주제: 러시아 혁명과 주변부의 문제		사회: 서동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0:00 ~ 11:00	발표주제: 제국 주변부에서의 러시아 혁명: 아르메니아의 인종갈등과 국경분쟁 발표자: 강윤희(국민대)	토론: 황성우(한국외대)
	11:00 ~ 12:00	발표주제: 러시아 혁명적 관점에 본 북한사회주의 체제 발표자: 박종수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정책위원회)	토론: 김연수(국방대)
점심 식사	12:00 ~ 13:00	점심식사	
사회 과학 분과 B	분과주제: 러시아 혁명과 러시아 사회의 쟁문제		사회: 장덕준(국민대)
	13:00 ~ 14:00	발표주제: 혁명과 국가와 사회 : 러시아혁명 이후 국가- 사회관계의 변화 발표자: 김창진(성공회대)	토론: 김성진(덕성여대)



	14:00 ~ 15:00	<p>발표주제: 러시아학계의 러시아혁명 연구 : 소련 붕괴 이후 역사학계를 중심으로(Истор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Русской Революции в России)</p> <p>발표자: 블라지미르 바바쉬킨(Владимир Бабашкин) (러시아 대통령실 산하 국민경제 및 공공정책 아카데미 교수, Профессор, Академия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ы РФ)</p>	토론자: 정세진(한양대)
휴식	15:00 ~ 15:30	Coffee break	
사회 과학 분과 C	분과주제: 러시아 혁명과 동유럽		사회자: 박수현(경희대)
	15:30 ~ 16:30	<p>주제: 1917년 러시아 혁명과 남슬라브족: 그 영향과 의미</p> <p>발표자: 김철민(한국외대)</p>	토론자: 조준배(서원대)
	16:30 ~ 17:30	<p>주제: 헝가리 소비에트 공화국과 러시아혁명</p> <p>발표자: 김보국(한국외대)</p>	토론자: 노경덕(이화여대)

17:30 ~ 19:30 만찬 (장소는 당일 공지)



신간안내



- ▷ **쉽게 공부하는 러시아어 숫자와 단위 표현**
저자: 유학수(선문대) / 명지출판사 / 2017년
- ▷ **러시아 시사 투데이**
저자: 유학수(선문대), 윤지영, 박윤정 공저 / 명지출판사 / 2017년



- ▷ **한글신문 『선봉』을 통해 본 연해주 고려인 사회의 교육과 생활문화**
저자: 정막래(계명대), 배은경, 임영상 편 / 금철사랑 / 2017년
- ▷ **한글신문 『선봉』을 통해 본 연해주 고려인 사회의 문학과 문화예술**
저자: 정막래(계명대), 배은경, 임영상 편 / 금철사랑 / 2017년

회원동정

이영범 한국노어노문학회 회장께서 학회 발전을 위해 100만원을 기부하셨습니다.
김태진 교수(배재대)는 교내에 자율연구소인 소수민족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학회지 발간안내

학회지 『노어노문학』은 연 4회 발행됩니다. 제1호와 제2호는 3월 30일과 6월 30일에 각각 발행되며 제3호와 제4호는 9월 30일과 12월 30일에 발행됩니다.

제27권 제3호에 게재를 희망하시는 회원들께서는 8월 15일까지 게재하실 논문을 첨부하여 karll_edit@hanmail.net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Jams System 투고 의무 사항)

(학회지 논문 투고요령 참조)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게재 신청 논문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게재 신청 시 반드시 연회비와 심사료를 학회구좌(소식지 표지 참조)에 입금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평생회비는 50만원, 연회비는 5만원입니다. 평생회비를 납부하신 회원께서는 연회비를 내지 않으셔도 논문을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논문게재료는 전임교원 회원의 경우 연구비 지원 논문은 20만원, 지원이 없는 논문은 10만원, 비전임교원 회원은 연구비 지원 논문 20만원, 그렇지 않으면 5만원입니다. 전임, 비전임의 기준은 지속적 급여 수령과 퇴직금 유무인데, 모호할 경우 학회 총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예) 비정년트랙 교수, HK교수 및 HK연구교수의 경우 전임으로, 학진 지원 연구교수, 학진 전임연구원 등은 비전임으로 구분됩니다.

심사료는 3만원입니다.

학회지 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



한국노어노문학회는 노어 · 노문학을 비롯한 슬라브어문학의 연구와 보급을 위하여 학회지 <노어노문학>을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그리고 12월 30일, 연 4회 발행한다. 이를 위한 논문투고요령과 심사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논문투고요령

1. 분야: 노어학, 노문학, 슬라브어학, 슬라브문학, 노어교육학, 러시아 및 슬라브 권 문학
2. 종류: 상기 분야의 연구 논문 및 서평 요령
3. 분량: 최대 A4 28매 (참고문헌 포함). 초과 시, 장당 2만원 추가 게재료
4. 사용언어: 본문은 한글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요약문은 본문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심사에 통과된 게재논문들은 학술연구재단 홈페이지에 파일의 형태로 탑재됩니다. 이를 위해 학술연구재단은 한글과 외국어 요약문, 한글과 영문 주제어,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논문을 투고할 때 학술연구재단 제출용으로 상기 요구 사항들을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 작성요령

5.0 논문제목 : 아래에 필자명과 소속을 오른쪽 정렬로 한다.

단, 공동연구일 경우 제1저자(책임연구자)를 저자명 중에서 제일 앞에 배치함으로써 공동저자(연결저자 포함)와 구별함. 이때

제1저자에는 *를 붙인다.

5.1 여백주기 : 초기 화면대로

5.2 문단모양 : 초기 화면대로

5.3 글자크기 : 초기 화면대로

5.4 글자간격 : 초기 화면대로

5.5 글꼴 : - 윤명조 120체 (서체가 없을 시, 한컴바탕체로 제출 가능)



- 영어 및 러시아어 Palatino Linotype

- 모든 숫자 Palatino Linotype

5.6. 그 외 주요 사항-1:

- 러시아 작품명 (단편): “ ” 표시

- 러시아 작품명 (중-장편): 『 』 표시

- 직접 인용 문장 (한글/러시아어/영어 모두) “ ” 표시

- 강조 (한글/러시아어/영어 모두) “ ” 표시 (밑줄 혹은 짙은 색 강조 하지 않음)

- 논문 제목: 모든 언어 자료에서 “ ” 표시

- 저널 및 신문: 모든 언어 자료에서 「 」 표시

- 논문 제목: 15 진하게 (고딕체)

- 챗터 제목: 13 진하게 I. II. III. IV.... (고딕체)

- 챗터 제목: 서론, 결론 외 ‘들어가는말’ 혹은 ‘나가는 말’ 등의 다른 기타 표현을 하지 않음

- 챗터 소제목: 12 진하게 II-1. II-2. III-1. III-2...

- 본문: 11

- 각주: 10

- 본문 내 인용문단: 11 (행간은 각주에서 동일하게 130%)

그 외 주요 사항-2:

- 도표, 그림, 사진: 자료 바로 하단에 정보에 대한 설명을 하되,

[도표-1] “러시아 2015년 문학의 해, 모스크바 행사 내용”

[그림-1] “Facebook자료 캡처”

[사진-1] “톨스토이 생가 사진. 필자 직접 촬영” (2015.08.12.)

- 본문 내 인용 시, 앞뒤로 한칸씩 띄운다.

5.7 각주



[단행본]

저자 (편),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p. 쪽수.

김종대, 『우리문화의 상징세계』 (서울: 다른세상, 2001), p. 24.

루이스 면퍼드, 『기술과 문명』, 문종만 역 (서울: 책세상, 2013), p. 201.

David Dordwell, *The Cinema of Eisenstei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5).

В. К. Соколова, Ответ. ред., Традици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в фольклоре (Москва: Наука, 1988)

Д. Николаев, Сатира Гоголя (Москва: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84), сс. 3-4.

김종대, *op cit.*, p. 29.

Ibid., p. 87.

David Dordwell, *op cit.*, p. 39.

В. К. Соколова, там же. с. 98.

Там же. сс. 99-100.

[단행본의 한 챕터]

저자, “챕터명,” 편집자 명(편),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p. 쪽수.

김학준, “소련 데탕트政策의 논리와 현실,” 김학준 편, 『現代소련의 解剖』 (서울: 한길사, 1981), p. 38.

Irina Reyfman, “Prose Fiction,” in Andrew Kahn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Pushkin*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 56-58.

D. N. Shalin(ed), *Russian Culture at Crossroad: Paradoxes of Postcommunist Consciousness* (Colorado: Westview Press, 1996)

Л. Н. Виноградова и С. М. Толстая, “Символический язык вещей: веник (метла) в славянских обрядах и верованиях,”

// Символический язык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Москва: РАН, 1993), сс. 56-57.

김학준, *op cit.*, p. 209.

Ibid., p. 208.

Irina Reyfman, op cit., p. 78.

Ibid.,

D. N. Shalin(ed), op cit., p. 100.

Л. Н. Виноградова и С. М. Толстая, там же. с. 223.

[학술지논문]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권 , 호 (년도).

김우승. “러시아 정교의 상징성과 문화적 실재.” 『슬라브연구』. 제 13권 (1997).

Денисова, И. М. “Этнос и культура. Зооморфная модель мира и её отголоски в русской на родной культуре.”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е обозрения. no 3 (2003).

Sullivan, John. “Dukhovnye stikhi among Twentieth-Century Old Believers: Song-books of the Kilin Family.”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75, No. 3 (July, 1997).

[그 외 문헌]

“러 올림픽 위원장 “푸틴 도핑 지원 주장 터무니없어.” 「중앙일보」. 2016년 1월 17일.

“러 올림픽 위원장 “푸틴 도핑 지원 주장 터무니없어.”

<http://news.joins.com/article/19421605> (검색일: 2016.01.17.).

“Российская неделя искусств “откроется в субботу в ЦДХ.”

<http://ria.ru/culture/20160116/1360389606.html> (검색일: 2016.01.17.).

Kotkin, Stephen Kotkin. “The Resistible Rise of Vladimir Putin.”

<https://www.foreignaffairs.com/reviews/resistible-rise-vladimir-putin3> (검색일: 2016.01.17.).

7. 제출형식 : ‘아래아 한글’ 로만 작성하여 제출함. 편집양식을 이행하지 않은 투고논문은 반려함. 국문초록은 700자 이내로.

8. 제출마감일 : 매년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

9. 제출처 : karll_edit@hanmail.net

10. 게재료규정 : 대학의 전임 및 이에 준하는 회원이 연구비지원을 받았으면 20만원, 그렇지



지 않으면 10만원, 비전임 회원이 연구비

지원을 받았으면 20만원, 그렇지 않으면 5만원을 학회구좌에 납입한다.

(*논문제출시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와 논문게재료, 심사료(3만원)를 학회구좌에 납입한다.

심사결과 게재불가 판정을 받을 경우 게재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11. 배포방식 : 비매

나. 논문심사규정

1. **심사위원회 구성** :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편집위원들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위원의 임기는 임원진의 임기와 같되 연임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편집이사의 동의를 얻어 관련분야의 국내외 전문학자를 비상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심사원칙** :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하도록 한다. 심사결과는 논문 제출자에게 개별 통보하되, 해당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3. 심사판정

3.1. '게재 가'

- ① 3인의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 가' 판정
- ②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 가' 판정

3.2. '수정 게재'

- ①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의 심사위원이 '수정 게재' 판정
- ② 필요시 수정 후 재심을 통과한 후 게재

3.3. '게재 불가'

- ① 3인의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 불가' 판정
- ②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 판정
- ③ 논문제출자가 심사위원회의 수정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논문제출시 연회비(5만원)와 심사비(3만원)를 학회구좌에 입금. 논문통과 후 논문게재료를 학회구좌에 입금.

회비 납부현황

▶ 평생회비 명단

고 일, 곽태석, 권철근, 강덕수, 강명수, 강흥주, 권철근, 기연수, 김경태, 김군선, 김근식, 김기열, 김문황, 김상현, 김선진, 김선명, 김성완, 김성일, 김세일, 김신호, 김원한, 김재환, 김정아, 김정일, 김준석, 김진규, 김 혁, 김현택, 김홍중, 문석우, 문성원, 문준일, 박미령, 박선영, 박춘은, 박태성, 박혜경, 배대화, 백준현, 서상국, 석영중, 송정수, 송헌배, 심용보, 안병용, 안병팔, 안상훈, 안 혁, 양영란, 양창렬, 오종우, 유승만, 유학수, 윤경숙, 윤우섭, 이기주, 이길주, 이덕형, 이명자, 이상룡, 이수경, 이영범, 이용권, 이은순, 이종진, 이진아, 이진희, 이형구, 이희숙, 이희원, 장 실, 정막래, 정보라, 정연호, 조성연, 조혜경, 차지원, 채혜연, 최건영, 최종규, 최영미, 최윤락, 최인선, 최진석, 추석훈, 표상용, 한만춘, 한예경, 한 용, 한지형, 함영준, 홍기순, 홍대화, 홍상우, 홍정현, 황성우.

분납 : 강수경(10만원), 김태옥(20만원), 박영은(20만원), 윤새라(35만원), 천호강(25만원)

▶ 연회비(5만원) 명단 : 조혜경, 장 디아나, 조준래, 박선영, 황서경, 장혜진, 김주연, 박미정, 심지은, 기계형, 남혜현, 김보라, 김상현B, 이주만, 임혜영, 한현희

▶ 기관 회원 명단 : 대전대학교 도서관

※ 회비 납부 현황에 착오가 있는 회원은 총무국(karll21@hanmail.net)으로 연락을 주십시오.